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 마디가, 표현 하나가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런 표현 중 하나가 '희망'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듣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어쩌다 듣게 되면 오히려 낯설고 그 의도를 따지게 된다. 마치 사라져가는 희귀 동물의 이름처럼 듣기도 말하기도 어려운 표현이 되었다. 희망이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쉬운 단어가 낯설게 들리는 것은 어쩌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귀를 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은 탓인가 싶다. 그러나 희망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원리라고 말하는 사상가가 있다. 에른스트 블로흐라는 독일 철학자다.

에른스트 블로흐는 1885년 독일 남서쪽에서 유대인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고통과 차별 속에서 살았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18년 스위스 망명을 비롯하여 1933년부터는 나치를 피해 세계를 떠돌아 다녔다.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당시 나눠졌던 두 개의 독일 중 블로흐는 동독을 선택했다. 모두가 함께 잘살

희망은 희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블로흐는 얼마 안 가서 이념적 이유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서독을 여행하던 중 1961년 동독으로 돌아 가는 대신에 서독에 정착하여서 튀빙겐에서 1977년에 생을 마감했다. 오스트리의 삶을 산 블로흐는 자신의 사상을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작업 끝에 완성한 방대한 저작 '희망의 원리'에 집약하였다. 워낙 방대한 책이어서 읽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희망의 원리라는 제목에서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을 느낀다.

블로흐가 말하는 희망은 마냥 바라고 있는 것, 혹은 무조건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요행을 바라고 초월적 힘에 기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가 말하는 희망은 부단히 배워야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언명령으로서의 희망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희망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희망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기에 오히려 희망을 배워야 한다고 단호하고 말한다. "토대는 흔들리고, 그들은 왜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혼란을 느끼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심적 상태는 두려움이며, 그것은 분명해질수록 공포의 모습으로 우리를 엄습한다.……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며 엄습하기 때문에 희망을 배워야 한다고 것이다.

희망이란 '보다 나은 가능한 삶'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초월적 낙관이 아니기에 변화를 위한 희망은 그 변화가 필요한 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언제나 현실에서 싹터야 하고 다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무엇을 세상 속에서 발견해 낸다"는 희망의 원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특히 자신의 삶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걸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그리고 불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흔히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태도가 거친 냉소와 무조건적 불신이다. 하지만 세상을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정작 타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눈길을 세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냉소주의의 바탕에서 작동하는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혐오와 열등감, 무력감의 얼음덩어리로 가득하다.

희망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희망한다는 것이 곧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 블로흐의 현실은 어느 때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그래서 블로흐는 '희망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희망의 동인만큼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겼다. 희망은 아직 충분히 의식되지 못했지만 더 미래를 갈망하는 것이며, 현재에 대한 실망에서 출발하는 삶의 원리이다. 그리고 희망의 원리는 내일은 오늘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저 유명한 신곡의 지옥 편에서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단테는 말하지 않았던가.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이 곧 지옥이다.

작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희망은 언제나 현실에서 싹터야 하고 다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무엇을 세상 속에서 발견해 낸다"는 희망의 원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특히 자신의 삶이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걸잡을 수 없이 증폭된다. 그리고 불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흔히 그리고 쉽게 나타나는 태도가 거친 냉소와 무조건적 불신이다. 하지만 세상을 냉소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정작 타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의 눈길을 세상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냉소주의의 바탕에서 작동하는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혐오와 열등감, 무력감의 얼음덩어리로 가득하다.

희망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희망한다는 것이 곧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 블로흐의 현실은 어느 때도 순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그래서 블로흐는 '희망의 내용은 변할 수 있지만 희망의 동인만큼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겼다. 희망은 아직 충분히 의식되지 못했지만 더 미래를 갈망하는 것이며, 현재에 대한 실망에서 출발하는 삶의 원리이다. 그리고 희망의 원리는 내일은 오늘 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저 유명한 신곡의 지옥 편에서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단테는 말하지 않았던가. 어떤 희망도 없는 곳이 곧 지옥이다.

社說

이태원 대참사...지역 축제·행사장은 안전한가

핼러윈(Halloween)을 앞둔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가량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어제까지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쳐 모두 25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다. 참으로 비통하고 충격적인 참변이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이날 밤 핼러윈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사고는 해밀턴 호텔 옆 폭 4m 정도의 좁은 내리막길에 인파가 몰려 뒤엉키면서 발생했다. 밤 10시 22분께부터 이 부근에서 사람이 깔려 호흡 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다. 하지만 인파로 가득 찬 골목에 구급 차량과 인력이 진입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구호가 늦어졌고, 그 사이 인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다고 한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정부는 어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

다. 당장 급한 것은 사고의 수습과 부상자 치료 등 신속한 후속 조치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실종자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길바닥에 쓰러지는 어비규환의 현장에서도 시민들은 앞다뒤편 심폐소생술(CPR)에 나서 추가 사상을 막았다. 문제는 3년 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지자체나 경찰은 별다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규모 군중이 몰린 공연장 등에서 수차례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사고가 근절되지 않은 채 대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장소에 일정 규모 이상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 관리 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광주·전남 지자체도 다중이 함께하는 축제나 행사장에 불안정 요인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방채 급증 광주시, 재정 건전성 관리 나서야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광주시의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채무액이 4000억 원 이상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의 대표적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광주의 대표적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은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당초 2조 1761억 원에서 3조 원대로 급증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7000억 원 가운데 절반인 3500억 원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는 대부분의 건설 사업비 예산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채무액은 2020년 1조 180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1조 2502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4409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올해도 재원 조달을 위해 333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 공공 자금 370억 원, 지역 개발 채권 700억 원, 민간 자금 2268억 원 등이다. 민간 자금 중 1000억 원은 최근 지방채 금리보다 금융기관에 더 저렴해짐에 따라 여력적으로 시급인 광주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현안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광주시의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산 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지자체와 협약에 따라 국고 보조 부담 비율을 조정·심 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 시비 부담을 줄이는데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채무 급증 속에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말 무덤(馬塚)? 말의 무덤(言塚)? 광주호 둘레길에 들어서 몇 발짝을 걷다 보면 안내판 하나가 눈길을 끈다.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말의 무덤인지, 소통의 언어로서 말의 무덤인지를 묻는 것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글귀들을 읽는다.

"말 무덤에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많은 곳에 전해지듯 마을에 나쁜 액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의 산인 조산(造山)을 만들고 이를 큰 무덤이라는 뜻으로 말 무덤(大塚)이라고 불렀다는데... 두 번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이 마을 출신 김덕령 장군이 아끼던 말을 이곳에 묻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옛날부터 사소한 말 한 마디가 씨앗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자 마을에 나쁜 말들을 이곳에 묻어 떠들지 못하게 했다는 언총(言塚)의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안내판 너머로 작은 동산 같은 둥근 봉분이 보인다.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기는데 그 여운이 제법 길다. 인공 산을 만들어 마을에 들어오는 액을 막고자 했다는 것도 그렇고, 아끼던 말의 무덤을 만들어 애도의

말 무덤

마음을 담은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마을에 떠도는 나쁜 말들을 묻어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대목은 더욱 그렇다. 무덤이란 죽은 자의 집이며 다시 살아 올 수 없는 것들의 집이니, 죽음이 두렵거든 말조심부터 해야 한다는 경고일 것이다.

의표를 찢린 듯 뜨끔하면서도 한편으론 웃음도 나온다. 직선의 예리함보다 곡선의 부드러움을 택한 듯, 경고라기보다 권고에 가까운 에두름의 형식이 익살스럽다고 할까. 말과 말[말:], 소리는 같으면서 뜻은 다른 동음이의어의 활용을 이처럼 재치있게 사용한 예는 흔치 않을 것이다. 말 무덤(마총)에서 말 무덤(언총)을 연상하거나, 거칠고 험뜯고 비방하는 모든 부정어를 거둬들이며 말의 무덤을 만든다는 발상이 유쾌하고 발랄하다. 여기에는 말의 폭력성을 차단하고 예방하려는 고도의 전술과 전략이 담겨 있거니와 화이트와 우머 속에 부드러운 녹아 있는 것이다. 그 효과가 어땠을지는 몰라도 '말'을 '중히' 여기 그 정신의 증거만큼은 또렷해 보인다.

어렸을 때, 동네에 싸움이 흔했다. 애들도 싸우고 어른들도 싸웠다. 숭바꼭질하다가도 싸우고 땅 따먹기 하다가도 싸우고 숙제하다가도 싸웠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들끼리 먹살을 잡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아이들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도대체 왜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싸우지 마라, 우에 있게 지내라는 훈시를 수시로 앞세우는 '어른'일 뿐 아니라 싸움과는 어울리지 않는 '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당치도 크고 나이도 먹음 만큼 먹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식의 싸움을 한다는 게 매번 놀

라웠다.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2탄 3탄으로 이어지는 일도 흔했다. 단순한 말싸움에서 시작된 일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라도 잘 정리가 되면 좋은데 누구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려 들지 않았다. 경찰을 부르고 고소장을 내고 법정까지 가게 되는 난투극도 마다치 않았다. 싸움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싸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두고두고 앙금이 남았고 그 여파 또한 곳곳에 미쳤다.

구경하는 입장에선 싸움이 거칠고 격렬해도 무방했다. 치켜 올랐던 눈썹, 내소는 눈빛, 실룩거리는 입술, 벌근 전 주먹, 떨어지기 무섭게 되받아치는 말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과 핏대오른 현장의 살벌한 분위기는 구경꾼의 심장마저 쫓겨하게 만들었다. 내소는 눈총과 말 총과 주먹 총들을 조마조마 지켜보며 탐정이 되었다가 심판자가 되었다가 다시 구경꾼으로 돌아오는 일은, 그러나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내 일도 아니고 자초지종을 아는 것도 아니니 구경이나 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는 왠지 모를 호기심 외에도 누군가 맞고 때리는 것에 대한 파괴적인 본능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말 무덤"을 지나오며 싸움이건 싸움 구경이건 그 시 작은 알게 모르게 정착한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탓하고 나무라고 험뜯고 비난하는 말들의 부정성과 폭력성 앞에 누구도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말 무덤'은 지나가는 발길을 붙들어 완곡히 그 경계로 삼으라 한다.

기고



김복희
함평군 노인복지관 관장

"노인" (老人)이라는 말에는 부정의 의미가 더 많다.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쇠퇴기로 의존적이고 무용한 존재를 뜻하기도 한다. 차별과 비하의 대상이 되어버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 탓에 노인 대신 '어르신'이라는 말이 대응어로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불평함을 내색한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존중받을 만하다는 식의 표현을 내켜 하지 않는 것이다.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암묵적 연령주의(implicit ageism)가 내포되어 있다. 일방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하려는 사회적 태도가 역력하다. 우리는 노인을 '어르신'이라는 특수한 계층으로 치부하며 공동체 안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2020년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8%가 65세 노인층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1000만 명 노인들의 존재론적 의미와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노인'이라고 쓰고 '선배 시민'이라고 읽는다

고민해 볼 때인 듯하다.

'선배 수업'(서해문집)에서 작가는 인생 2막에 들어선 '먼저 살아온 사람' 즉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선배 시민'을 제안했다. 적절한 표현이다. 미국에서도 나이 든 시민을 상급 시민(senior citizen)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아직은 생소한 '선배 시민'이라는 명칭은 특별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노인을 단순히 복지 재정을 소비하는 복지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원로이자, 존엄한 가장으로 경롱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돌봄의 대상에서 벗어나, 시대를 함께 살아가며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고, 마을의 100년 후를 설계하는 진정한 어른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집스러운 존재, 돌봄의 대상,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로 노인을 인식하지 않고, 지난 70-80년 동안 쌓아온 통찰과 혜안을 지역사회와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공익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는데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신(新)노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발전적 담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즉 광주·전남 지역을 하나로 묶어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50+센터 그밖에

노인 복지 주체들이 연대하고, 학습하며,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가칭) '광주·전남 선배 시민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여 선배 시민 정책 수립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커뮤니티센터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여 선배 시민들이 지역사회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중유의 초고령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고령화라는 급류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뿌리인 '노인'에 대한 올바른 존재론적 인식과 사회적 역할 부여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배 시민'(마복)의 저자는 선배 시민이란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이를 당당하게 누리며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노인이 선배 시민으로 거듭나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이 될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100세 시대'다. 하지만 늘어난 평균 수명과 달리 60세가 넘으면 '임어'로 취급하는 혐로(嫌老) 사회는 여전히 전하다. 노인에 대한 인식을 '선배 시민'이라는 주체적 존재로 변화시키고,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배 시민'의 의미를 알리는 역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일 것이다.

無等鼓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깊어가는 이맘때면 '문학병'을 앓는 이들이 있다. 바로 신춘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문학청년들이다. 연례행사처럼 신춘문에 시즌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당선'은 일생일대의 목표다. 오죽 했으면 박범신은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은 나무'라는 말로 신춘문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했을까. 오늘의 시대에도 그런 수사가 유효하지 않 수 없겠지만, 문학에 대한 진정성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문학담당 기자인 필자는 9월 무렵부터 신춘문에 관련 전화와 방문한 다. 며칠 전에도 "광주일보 신춘문에 공모는 언제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에는 '등단'의 열망이 배어 있었다. 확인 차 습관적으로 문의를 해오는 문청들도 없지 않다. 대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에게 신춘문에는 참가 의미를 넘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레일 터였다.

우리나라 신춘문에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동아일보에서 최초로 시작됐다. 당시 '임격정'의 작가 홍명희 편집국장 주

도로 진행됐다. 조선일보에는 이보다 2년 뒤에 1927년에 신춘문예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의 신춘문예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문학 행사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권위만큼이나 신춘문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상존한다. '문단 고시화' 돼 적잖은 작가 지방생들을 문단 밖인으로 만든다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제도를 다변화해 문단에 입문하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통과 운운의

모를 살펴 창작 에너지를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장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광주일보 신춘문예도 내년이면 70주년을 맞는다. 사시(社是) 가운데 '문화창달의 기수가 된다'는 대목처럼 신춘문예도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싶다.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올해 공모(5년 사고)를 시작으로 맞을 올렸다. 이후 일정은 작품 접수(12월 8일 마감)와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순 당선작이 결정될 예정이다. 문청들의 건투를 빈다.

/박성천 여론매체부 부국장 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